

축구

10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K리그 4라운드 | 타गत 멀티골...수원, 인천 잡고 3연패 끝



수원 삼성이 3월 3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3-1로 꺾고 올 시즌 4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1골 1도움을 올린 베테랑 염기훈(오른쪽에서 4번째)이 신세계와 포용을 한 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경기결과	▶ 3월 29~31일
울산	울산 2 : 1 제주
상암	서울 2 : 0 상주
전주	전북 2 : 0 포항
창원	경남 2 : 1 대구
춘천	강원 2 : 1 성남
수원	수원 3 : 1 인천

개막 4경기 무실점 서울, 어게인 2012?



최용수 감독

FC서울이 기분 좋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서울은 3월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 1 2019' 4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서울은 개막 이후 3승1무, 승점 10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슬로우 스타터' 이미지가 강한 서울이 예년과는 다르게 시즌 초반 꾸준하게 승수를 챙기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리그와 FA컵만 치르는 서울의 최근 행보는 201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11년 K리그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는데 실패한 서울은 이듬해 리그와 FA컵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2년 K리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리그 강호 전북 현대가 승점이 감점되는 행운도 동반했다. 서울은 2012년 K리그에서도 초반 4경기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3승1무를 거두는 등 개막 이후 성적이 좋았다.

7년 전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당시의 데얀, 에스쿠데로, 몰리나, 아디 등 공격과 수비에서 확실한 카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서울의 행보는 다르다. 시즌 초반 국내 선수들이 팀을 끌어가고 있다. 고요한, 정원진, 황현수(2골) 등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해냈다. 많은 기대 속에 서울 유니폼을 입은 알리바예프(1도움)와 페시치는 아직 골이 없다.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박주영과 조영욱도 공격 포인트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최용수 감독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핵심 공격수들이 골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원활한 공격 작업을 통해 팀이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부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수비가 좋다. 4경기에서 1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은 2일 울산 현대, 6일 경남FC, 14일 강원FC, 21일 인천 유나이티드, 28일 전북 등 4월 일정이 만만치 않다. 울산, 경남,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며 시즌 초반 리그에서는 확실한 지배력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이 4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두 수성 혹은 선두 경쟁을 지속할지 궁금하다.

최용수 기자 glyong@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조원희 은퇴하는 날, 수원 삼성 첫 승 썼다

(수원 레전드)

조원희 "파이팅 합시다" 응원에 응답 염기훈, 통산 69호골...인천은 2연패



조원희 감독

"수원 삼성 파이팅 합시다!"

지난해 은퇴를 선언한 수원 삼성 출신 조원희(36)는 3월 3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수원 삼성의 '하나원큐 K리그 1 2019' 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가 열렸다.

조원희는 경기에 앞서 펼쳐진 자신의 은퇴식에 자리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섰다. 유니폼이 아닌 정장차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빅버드(수원월드컵경기장)의 푸른 잔디 위에 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수원에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만 안고 간다.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원 삼성 파이팅 합시다"라며 선수



수원 삼성이 3월 3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레전드 조원희(앞줄 왼쪽 2번째)의 은퇴식을 거행했다. 차범근 전 수원 감독(앞줄 맨 왼쪽)과 조원희의 가족들도 이날 참석해 뜻 깊은 자리를 빛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시즌 초반 3연패의 부진에 빠진 수원을 위한 짧고 굵은 응원의 메시지였다. 조원희의 은퇴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범근 전 수원 감독까지 빅버드를 찾아 친정팀을 응원했다.

조원희의 말대로 수원은 분발이 필요했다. 이날 경기 이전까지 3경기에서 3패만

을 떠안았다. 승점은 단 1점도 얻지 못했다. 경기 내용도 좋지 못했다. 3경기에서 무려 8실점을 했다. 득점은 2점뿐이었다. 당연히 순위표 맨 아랫자리는 수원의 몫이었다. 1승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 동안 수원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 이임생

감독은 "공수 모두 조직적으로 준비를 했다. (실점이 많다고) 수비에 중점을 두고 팀을 정비하지는 않았다.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격과 수비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의 바람은 이뤄졌다. 수원은 2골을 기록한 타가트를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타가트는 1-1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 18분 문전으로 침투, 염기훈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린 볼을 절묘하게 발을 갖다대면서 골로 연결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는 신세계의 크로스를 헤딩 골로 만들어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수원은 3연패 끝에 시즌 첫 승의 기쁨을 누렸다.

전반14분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올린 수원의 간판 미드필더 염기훈은 통산 69골을 기록, 통산 70골에 한 골만을 남겼다. 개막 두 경기에서 1승1무로 선전했던 인천은 상주 상무(0-2패)에 이어 수원에게 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다.

수원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연승 가는 길' 속도전...강원이 더 빨랐다

성남-강원 양 팀 사령탑 '스피드' 승부 신희환 후반 43분 결승골...강원 2연승

A매치 휴식기를 끝낸 가운데 3월 31일 춘천 송암레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4라운드 강원 FC와 성남FC의 한판 승부는 '속도 전쟁'이었다.

경기 전까지 두 팀 처지는 비슷했다. 초반 2경기에서 부진했지만 3라운드 원정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기운을 얻은 상황이었다. 전북 현대를 잡은 강원은 1승1무1패, 수원 삼성을 물리친 성남은 1승2패였다. 이번 맞대결에서 이기는 팀은 2연승과 함께 초반 페이스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양 팀 사령탑의 승부수는 속도였다. 성남 남기일 감독은 "지난해 2부에서 올

시즌 1부로 올라온 만큼 2부의 묵은 때를 벗어ना한다"고 말했다. 1부와 2부의 가장 큰 차이를 '템포'라고 구분했다. 공수전환이나 패스, 수비 패턴 등을 언급했다. 그는 "1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빠른 템포에 적응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볼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김병수 감독도 선수들에게 속도를 주문했다. 휴식기 동안 정선에서 가진 훈련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패턴 플레이를 많이 연습했다고 한다. 그는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지면서 백패스보다는 전진 패스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도둑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승점은 전술적인 짜임새와 함께 템포에서 앞선 강원이 가져갔다. 강원은 김현욱과 신희환의 후반 연속 골에 힘입어 김현성이 한골을 만회한 성남을 2-1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강원 정석화는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필필 날랐다.

4-3-3 포메이션의 강원은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전반 초반 신희환과 제리치의 연속 슈트로 주도권을 잡았다. 반면 3-4-3의 성남은 상대 공격을 적절하게 차단하면서 역습을 노렸다.

전반 득점 없이 비긴 가운데 후반 17분 강원의 선제골이 터졌다. 왼쪽 엔드라인을 파고든 정석화가 골문 한 가운데로 밀어준 볼을 김현욱이 슈트를 날렸고, 볼은 상

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선수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한 성남은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김현성이 왼발 슬라이딩 슈트로 거ier고 동점골을 만들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43분, 강원 신희환의 왼발 슈트가 폭발했다. 이번에도 정석화가 패스한 볼을 신희환이 문전에서 마무리했다.

강원 김병수 감독은 "골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좋았다"면서 "속도를 내면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향상시켜가도록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춘천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라리가 334승' 메시, 카시야스도 넘는다

(FC포르투 골키퍼)

에스파뇰전 2골...10시즌 연속 40골 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승 공동 1위로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10시즌 연속 40골 이상을 기록했다.

메시는 3월 31일(한국시간) 캄프누에서

벌어진 2018~2019 프리메라리가 29라운드 에스파뇰과 홈경기에서 2골을 넣어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21승(6무2패)째이자 메시의 통산 334승째. 이로써 메시는 이케르 카시야스(FC포르투)와 개인 최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메시는 2004~2005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해 15시즌 445경



메시

기 만에 334승(72무 39패)을 올렸다. 1승만 더 거두면 역대 최다승 기록을 세운다. 카시야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프리메라리가 510 경기에 출전해 334승(87무 89패)을 기록했다.

메시는 이날 두 골을 보태 올 시즌 리그 득점을 31골(27경기)로 늘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골(6경기), 스

페인국왕컵(코파 델 레이·4경기) 2골을 포함하면 올 시즌 메시의 총 득점은 41골이 된다. 이로써 메시는 총 47골을 터트린 2009~2010시즌부터 10시즌 연속 40골 이상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최소 12경기는 더 치른다. 리그에서 9경기를 남겨졌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 적어도 2경기는 치러야 한다. 국왕컵 결승에도 올라 있다. 따라서 메시는 54골을 넣은 2016~2017시즌 이후 2년 만에 다시 50골 고지도 노려볼만하다. 최현길 기자